

質搗精業者의 米穀流通 實態와 改善方向

安 基 玉

研究員, 食糧經濟室

- I. 問題의 提起
- II. 產地米穀市場의 構造變化 : 質搗精業者의 市場參與
- III. 質搗精業者의 米穀流通 實態分析
- IV. 問題點 및 改善方向

I. 問題의 提起

米穀生產이 통일계 중심에서 일반계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1986년 현재 一般系벼의 植付率은 78.0%로 식부율이 가장 낮았던 1978년의 23.8%에 비하면 54.2% 포인트 증가하였고, 최근 증가속도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1980년대 초반부터 계속된 米穀 국내 자급률 제고, 保管糧穀의 관리 및 糧特赤字의 누증, 政府米의 一般米價格調節機能의 약화 등으로 統一系收買政策의 변화가 모색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一般米와 統一系의 相對價格差의 확대, 일반계 벼의 품종개량으로 통일계의 일반계에 대한 增收率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¹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도 米穀의 새로운 需要開發 없이 국내 자급이 생산 목표가 된다면 一般系植付率은 증대될 것에 반해 統一系植付率은 계속 감소될 전망이다.²

일반계 식부율이 높아져 일반미 유통량이 증대되면서 米穀 民間市場의 流通機能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유통실태 변화를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米穀流通產業의 效率性 제고와 균형 있는 소득 분배 등을 위해 중요한 과제가 된다. 특히 產地米穀市場의 流通機能은 전체 米穀流通段階市場의 流通能率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며, 가격 형성의 公正性은 미국 생산자의 소득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 등에서 研究의 필요성이 크다.

그동안 產地米穀市場의 流通機能 수행능력은 계속적인 收買政策強化로 인한 流通物量의 감소, 農家勞動力의 양적 감소와 질적 하락, 도로·통신·수송수단의 발달 및 보급 확대 등에 기인한 인근도시의 經濟的集中 등으로 위축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政府收買政策은 民間流通量을 감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農家の 건조·

¹ 統一系의 一般系에 대한 增收率은 1975년의 143.3%에서 1984년의 112.6%로 감소하고 있다(朱龍宰 외 1986, 46).

² 1991년까지 國內自給을 유지하기 위해서 統一系植付率은 매년 3%씩 감소하리라는 전망이 있다(朱龍宰 외 1986, 53).

포장·운반을 제외한 商去來機能의 需要를 크게 줄였다. 이와 동시에 농촌노동력의 離農, 노령화, 不在村教育의 확대로 인하여 남아 있는 농민은 보다 세밀한 情報와 知識 그리고 판단력이 요구되는 商去來能力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거나, 價格條件보다도 去來의 便利性을 중시하는 경향도 없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農村地域의 개발이 中小都市 중심의 개발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中小都市 商人的 市場圈이 확대되었고, 이로 인하여 產地 마을 단위의 상인이 크게 감소하였다.

이 상황하에서 一般米流通量 재증대로 인해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產地民間流通機能은 農家와 產地商人이 다시 담당하거나, 아니면 이들의 勞動力·資本·施設 등을 대체할 수 있는 流通機關이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產地 民間市場의 주요 참여자로 나타나고 있는 貨搗精業者를 중심으로 하여 產地市場의 流通實態 변화와 함께 消費地 米穀 流通經路의 변화를 살펴보고, 문제점과 改善方向을 모색코자 한다.

II. 產地米穀市場의 構造變化 :

貨搗精業者의 市場參與

產地에서 활동하고 있는 流通主體는 蔓集商·搬出商·貨搗精業者·單位農協·農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는 產地流通機能은 대체로 정선·선별·가공 등의 商品化 기능과 商品을 소비자로 이송하기 위한 蔓集·搬出機能, 그리고 去來과정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商品의 所有權移轉 기능으로 구분된다.

전통적으로 이러한 流通機能들은 각 유통주체 별로 分業化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즉 商

品化 機能은 生산자인 農民이, 그 종 加工部門 은 搗精料收入을 획득하려는 貨搗精業者가, 수집과 반출은 商品의 所有權 移轉差益을 목적하는 蔓集商·搬出商이 5日市場 또는 農家庭前에서 주로 활동하였다.

流通機能의 分業化가 지배적인 전통적인 產地市場의 경쟁 관계는 서로 다른 流通經路間의 경쟁보다는 하나의 지배적인 流通經路內同一機能을 수행하는 商人間競爭이 더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流通下部構造(marketing infra-structure)의 발달로 產地에서 이용 가능한 시설·장비·정보가 확산되고, 產地市場 참여자들의 노동력 및 자본의 공급조건이 변화되었다. 이로써 產地流通 기능의 分業化가 무너지고 한 流通主體가 여러 가지 기능을 행하는 流通機能의 統合化가 진행되었다. 즉 蔓集·搬出商은 과거 수집과 반출 기능을 따로 행하던 것을 蔓集·搬出 기능을 한꺼번에 행하고 있으며, 貨搗精業者도 加工 이외에 保管·運搬, 때로는 乾燥 기능을 수행하면서 加工收益의 極大化를 꾀할 뿐만 아니라 직접 거래에 참여하거나 蔓集·搬出 기능까지도 수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產地流通 기능의 統合化가 진전되면서 產地市場의 경쟁 관계는 하나의 지배적인 流通經路內에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商人間競爭보다는 서로 다른 流通機能을 수행하는 流通經路間의 商人競爭으로 발전되는 것이라 하겠다.

우리 나라의 產地米穀市場에서 產地流通機能의 分業化는 1970년대 중반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즉 1967년도의 한 조사는, 產地市場에서 농가가 米穀을 판매한 대상이 주로 蔓集行商 5日市場 蔓集商, 그리고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部落小賣商 등이었고, 이들 產地商人의 市場占

有率이 58% 정도임을 나타내고 있다(農協中央會 調查部 1986). 또한 1977년에 같은 기관에서 조사한 報告書에서도 이들 產地商人의 市場占有率이 1967년에 비해 다소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인 43% 선인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農協中央會 1978). 이 기간 동안 賃搗精業者의 市場占有率은 20% 선을 상회하는 정도였고, 市場에서 상품의 所有權移轉을 위한 거래는 대부분 상인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86년에 韓國農村經濟研究院이 現地通信員 2,046명을 대상으로 農家の 米穀販賣先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產地商人의 市場占有率은 31%로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과거 시장 점유율이 20% 선을 다소 상회하던 賃搗精業者의 產地市場占有率은 62%로 크게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表 1). 이러한 사실로 보아 產地 米穀市場의 구조와 경쟁 관계의變化가 賃搗精業者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 더욱이 과거에는 주로 마을이나 5일시장을 단위로 활동하던 產地商人이 최근에는 邑이나 農村中小都市 단위에서 賃搗精業者 등

表 1 農家の 米穀販賣先別 市場占有率 變化

區 分	1967	1977 ⁴⁾	1985 ⁵⁾
產地蒐集・搬出商	17.1 ¹⁾	14.8	13.6
5 日 市 場	26.8 ²⁾	28.5	12.0
產 地 小 賣 商	14.2 ³⁾ 58.1	— 43.3	5.5 31.1
賃 搗 精 業 者	25.9	22.4	62.4
大 市 都 賣 商	15.3	29.6	—
大 市 消 費 者	—	4.7	4.2
其 他	0.7	—	2.3
計	100.0	100.0	100.0

1) 蒐集行商임.

2) 장터 蒜集商임.

3) 마을 小賣商임.

4) 1977年產은 재래종으로서 政府 및 農協 販賣分을 뺀 비율임.

5) 韓國農村經濟研究院 現地通信員 調查結果임.

資料：農協中央會調查部 (1986).

農協中央會 (1978).

現地通信員 調查結果.

을 통한 產地蒐集 활동과 消費地搬出에 주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產地 米穀市場의 流通效率은 賃搗精業者の 流通機能에 더욱 의존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賃搗精業者에 의한 消費地 직접 반출이 확대되면서 소비자 시장변화에도 賃搗精業者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III. 賃搗精業者와 米穀流通 實態分析

현행 糧穀管理法에는 賃搗精業者は 糧穀을 加工할 수 있으며 일체의 商行爲는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賃搗精業者들이 糧穀賣買業을 하고자 할 때에는 政府의 許可 또는 登錄을 필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賃搗精業者는 앞 節에서 보듯이 고유 기능인 加工 외에도 米穀去來 등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農協에서도 1985년에 99명의 賃搗精業者를 조사한 결과 84%에 달하는 賃搗精業者가 거래 행위를 직접하거나 관여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農協中央會 1986, 126). 또한 賃搗精業者は 加工收入의 極大化를 위한 粗穀의 수집·보관·운반 기능과 지역에 따라 粗穀去來를 통한 販賣, 그리고 자가 소유의 車로 수송·반출까지 수행하는 등 產地流通 기능을 統合하여 가고 있다. 또한 消費地販賣와 관련하여서는 流通下部構造改善를 활용하고 固定去來와 信用去來를 통해 都賣市場을 경유하지 않는 유통경로의 分散을 촉진하고 있다.

1. 產地流通機能의 統合化

가. 賃搗精業者와 產地米穀去來類型

賃搗精業者가 產地 米穀去來에 개입하는 유형

은 受託販賣型, 仲介販賣型 그리고 買取販賣型으로 크게 구분된다. 受託販賣型은 임도정업자가 농가로부터 무조건 미곡의 판매를 受託받아 판매해 주는 경우이다. 즉, 농가가自家 또는 搗精工場에 보관하여 둔 粗穀의 가공 및 판매를 임도정업자에게 受託하는 것으로서, 이때 貨搗精業者는 농가의 요구에 따라 수탁받은 시기의 產地販賣價格으로 직접 대금을 결제하고 이후 商品의 所有權을 갖게 된다. 受託販賣의 공식적인 手數料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농민에게 대금을 결제한 時點과 產地搬出商 또는 대도시 都小賣商에게 실제로 판매한 時點이 차이가 날 때에는 그 기간 동안의 市場價格變動에 의한 價格差益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價格差益의 多少는 임도정업자의 資金力의 크기에 비례한다고 판단된다. 仲介販賣는 일명 거래알선이라고 하며 搗精工場을 순회하는 蒐集搬出商 · 消費地 都賣商 · 小賣商 地區組合 · 小賣商 등과 농가간에 仲介役割만을 함으로써 代金決済는 貨搗精業者가 아닌 米穀商人이 한다. 商品의 所有權 역시 상인이 갖는다. 仲介販賣는 貨搗精業者가 加工物量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對農民 서비스적 성격이 크다. 買取販賣는 자기의 도정공장에서 가공한 精穀을 농가로부터 買取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粗穀을 買取하여 가공 후自己計算하에 판매하는 것이다. 買取販賣때 貨搗精業者の 賣出利益은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金堤郡에서 精穀을 買取販賣하고 있는 單位農協 精米所의 年平均 叱當 賣出利益이 410원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貨搗精業者の 경우에도 최소한 叱當 400~500원의 賣出利益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糧穀加工協會의 자료에 의하면 임도정업자의 對農民 去來類型은 受託販賣가 60.4% 買取販

表 2 貨搗精業者의 產地 米穀去來 類型別 去來量 比率

地 城	去來量	去來類型		
		受託販賣	買取販賣	仲介販賣
	천포/80kg%
京畿 (2,343)	2,464	42.2	19.8	38.0
忠北 (1,331)	583	52.0	46.3	1.7
忠南 (2,367)	3,538	79.8	11.4	8.8
全北 (1,752)	2,377	85.8	12.9	1.3
全南 (2,777)	915	3.1	94.9	2.0
慶北 (3,182)	953	43.5	54.3	2.2
慶南 (3,203)	515	39.4	59.8	0.8
計*(16,955)	11,345	60.4	27.9	11.7

() 안은 報告된 貨搗精工場數.

*計의 構成費는 物量加重平均임.

資料 : 粮穀加工協會.

賣가 27.9%인 반면 仲介販賣는 11.7%로 나타났다(表 2). 따라서 受託販賣와 買取販賣를 합한 물량의 비중은 88.3%나 되며, 이 물량은 貨搗精業者の 自己計算下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지역에 따라 임도정업자의 去來類型은 큰 차이가 있다. 京畿 지역은 米穀의 商標效果, 大消費地 인접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성 등으로 仲介販賣의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그밖의 지역은 貨搗精業者 計算下에 거래되는 受託 및 買取販賣의 비율이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買取販賣의 비중이 높은 지역은 주요 粗穀 去來地域인 全南 · 慶南 · 慶北이며, 受託販賣의 비중이 높은 地域은 精穀 去來地域인 忠南과 全北이다. 農協中央會가 1984년에 주요 米作地域을 표본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貨搗精工場의 總去來量 중 買取販賣의 비중은 40%로서 上記 조사 결과보다 약간 높게 조사되었고, 粗穀去來地域이 70%나 되는 반면에 精穀去來地域은 10% 정도로 지역 간에 큰 차이가 있었다(農協中央會 1986).

참고로 產地米穀市場의 조직과 임도정업자의

表 3 地域別 產地米穀市場組織 및 流通實態

地 域	米穀去來實態	主搬出地域	主要搬出經路	市占率 臺商	場有 農協의 米穀販賣事業 人	搬精業 者流機	5日市 의米穀去來
경기 이천	정	서울	직	산·임	×	I, II	×
	화성	서울·수원	직	타	×	I	×
	평택	서울	직	산	×	I	×
충남 당진	정	서울	직	산·임	×	I, II	×
	논산	서울·대전	직	타·임	×	II	△
	공주	서울·대전	직	산	×	I	×
전북 김제	정	서울·부산· 대구	직	산·임	△	II	×
	남원	서울·부산	직	산·임	△	I, II	△
	완산	서울·전주	직	산·임	×	I, II	×
전남 나주	조	서울·부산· 광주	직·위	임	×	II	×
	승주	순천·여천	직	타	×	I	×
	영광	목포(서울)	직	타·임	×	I	×
경북 상주	조	서울·대구· 부산	직·위	임	△	II	×
	월성	포항·울산	직	임	×	I	×
경남 진양	조	부산·마산	직	산	×	I	×
	밀양	부산	직	타·임	×	II	×

〈보기〉 정 : 경곡거래, 조 : 조곡거래, 직 : 직결거래(산지반출
상·임도정업자→도·소매상), 위 : 위탁상경유,
산 : 산지(읍·농촌도시)상인, 타 : 타지역(도시)상인,
임 : 임도정업자.

△: 다소활발, ×: 거의 없음.

I : 임도정 및 거래알선(중개판매).

II : 매취 및 수탁판매.

거래 기능을 지역별로 정리하면 〈表 3〉과 같다.

나. 粗穀去來實態

임도정업자의 產地米穀去來 유형과 관련하여 買取販賣의 비중이 높은 粗穀去來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 產地米穀市場은 지역내에서 통용되는 地價 단위가 벼 몇 섬이라는 등의 전통적인 관습에 따라 粗穀去來를 하는 지역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역내 전통적인 관습이라는 면에서보다 流通機能의 측면에서 粗穀去來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精穀去來와 粗穀去來를 流通機能 수행주체면에서 비교하여 볼 때 精穀去來는 米穀의 商品化

기능(즉, 전조·보관·정미소까지의 운반, 일정한 비용지불이 필요한 가공)까지를 농민이 담당한다. 그리고 去來機能 및 輸送 등은 賃搗精業者나 商인이 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精穀去來는 전통적 시장구조하에서 상인의 主機能이던 去來機能을 임도정업자가 강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여기에 비해 粗穀去來는 임도정업자가 수확기에 粗穀을 사서 商品化 기능과 去來 기능 그리고 搬出 기능 등 產地流通 기능 모두를 담당하는 것이다. 즉 농민의 商品化 기능과, 상인의 商去來 기능을 모두 임도정업자가 강화한 것이다. 그러므로 粗穀去來는 賃搗精業者에 의한 產地米穀流通機能 統合화의 좋은 예라 할 수 있겠다.

한研究에 의하면(朱龍宰의 1986), 粗穀去來는 全南·慶南北·全北의 일부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림 1). 특히 지역에 따라 粗穀去來率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은 全南의 곡성군·담양군·무안군·신안군·영광군·영암군·완도군·장성군의 8개 군이며, 全北에서는 全南과 인접한 3개 군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慶北에서는 경산군·금릉군 등 4개 군, 그리고 慶南에서도 2개 군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表 4). 그리고 이 粗穀去來地域에서의 平均粗穀去來率은 38.8% 이었다. 그러나 지역별로 粗穀去來率은 全南이 68.2%, 慶南과 慶北이 각각 52.1%, 46.4%로서 3개 道에서는 농가의 米穀市場販賣量 중 절반 이상이 수확 직후 粗穀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表 5).

이러한 粗穀去來에 대한 粗穀去來地域 농민의 반응은, 「粗穀去來가 精穀去來보다 유리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44.6%, 「精穀去來와 비슷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39.0%, 그리고 「精穀去來

그림 1 粗穀去來地域의 分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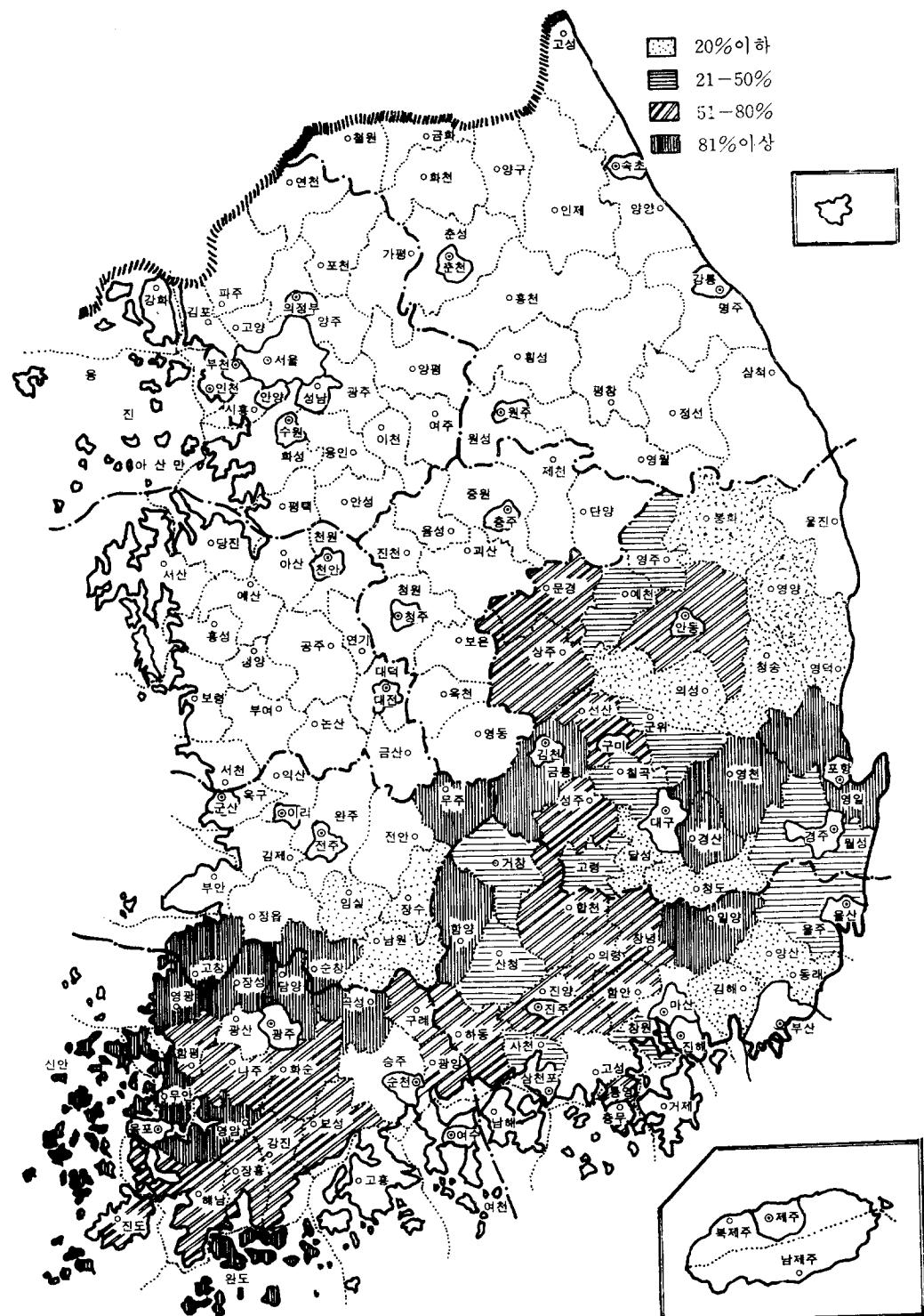


表 4 粗穀去來水準別 粗穀去來地域

粗穀去來水準	地 域 Name
20% 이하	全北: 남원군, 임실군, 장수군 慶北: 달성군, 봉화군, 의성군, 영덕군, 청송군 慶南: 김해군, 고성군, 양산군
	慶北: 고령군, 영동군, 월성군, 철곡군 慶南: 거창군, 사천군, 산청군, 울주군, 의창군
	全南: 강진군, 구례군, 나주군, 보성군, 장흥군, 진도군, 합평군, 해남군, 화순군 慶北: 문경군, 선산군, 성주군, 상주군, 안동군 慶南: 의령군, 진양군, 창녕군, 합천군, 하동군, 함안군, 통영군
50~80%	全北: 고창군, 무주군, 순창군 全南: 곡성군, 담양군, 무안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慶北: 경산군, 금릉군, 영일군, 영천군 慶南: 밀양군, 함양군
	全北: 고창군, 무주군, 순창군 全南: 곡성군, 담양군, 무안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慶北: 경산군, 금릉군, 영일군, 영천군 慶南: 밀양군, 함양군
	全北: 고창군, 무주군, 순창군 全南: 곡성군, 담양군, 무안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慶北: 경산군, 금릉군, 영일군, 영천군 慶南: 밀양군, 함양군
80% 이상	全北: 고창군, 무주군, 순창군 全南: 곡성군, 담양군, 무안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慶北: 경산군, 금릉군, 영일군, 영천군 慶南: 밀양군, 함양군

表 5 調査農家의 戶當平均 市場販賣量과 粗穀去來量
단위: 吨/54kg

地 域	應答農家數	市場販賣量 (A)	粗穀去來量 (B)	B/A
全 北	113戶	67.9	8.6	12.7%
全 南	179	23.3	15.9	68.2
慶 北	169	23.3	10.8	46.4
慶 南	151	23.8	12.4	52.1
計	612	31.7	12.3	38.8

表 6 粗穀去來에 대한 農家反應

區 分	應答者數	比率(%)
粗穀去來보다 有利하다	120	44.6
비슷하다	105	39.0
粗穀去來보다 不利하다	44	16.4
計	269	100.0

表 7 粗穀去來의 推移

區 分	應答者數	比率(%)
과거에 비하여 증가추세	130	47.8
과거와 비슷하다	83	30.5
과거에 비하여 감소추세	59	21.7
計	272	100.0

表 8 粗穀去來 理由別 應答者の 比率

理 由	應答者數(戶)	比率(%)
운반, 건조 등 諸費用이 절감되고 제값을 받기 때문	137	53.7
搗精收率이 높기 때문	42	16.5
급전이 필요할 때 先渡金을 받을 수 있다	28	11.0
교통이 불편하여 粗穀去來가 어렵다	4	1.6
精米業者나 商人이 벼로만 구입하 기 때문	44	17.3
計	255	100.0

資料: 現地通信員 調査

보다 불리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16.4% 이었다(表 6). 이 조사 결과에 의하면 粗穀去來 지역의 농민들은 精穀去來보다 粗穀去來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조사 지역내 粗穀去來의 추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8%가 「과거에 비해 늘어나는 추세」라고 답하였고, 「과거와 비슷하다」가 31%인 반면에 「과거보다 감소추세에 있다」고 응답한 농가비율은 22%로 조사되었다(表 7). 이러한 조사 결과로 미루어 볼 때 粗穀去來는 調査地域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농민들이 粗穀去來를 하는 주된 이유는 商品化 과정의 諸費用이 절감되면서도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것(53.7%)과 粗穀去來 貨搗精工場의 규모 및 시설이 양호하여 搗精收率이 상대적으로高位이고(16.5%), 先渡金 혜택(11.0%)이 있기 때문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밖에 粗穀으로만 거래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응하는 농가 비중도 18.9%이었다(表 8).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全南과 慶南北에서는 粗穀去來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민들은 粗穀去來가 有利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이와 관련하여 농민의 입장에서 粗穀去來가 精穀去來보다 과연 유리하며, 米穀流通上

表 9 粗穀去來 搗精工場의 쌀 80kg 當 原價*

區 分	金 額	備 考
費 用	원	
原料代(粗穀)	73,000	粗穀 200근(120kg) × 365원 =73,000원
蒐集輸送費	600	3만원/만근, 200근 × 3원 = 600원
搗 精 料	2,300	貨搗精經由(搗精利益 포함) 80kg 當 = 2,300원
上 下 車 費	200	1만원/만근, 200근 × 1원 = 200원
小 計(A)	76,100	
副 收 入		
精穀剩餘分	6,270	(87.6kg - 80kg) × 825원 (66,000원 / 80kg) = 6,270원
미 강	1,280	16근/200근, 16근 × 80원 = 1,280원
왕 거	340	34근/200근, 34근 × 10원 (1000원 / 100근) = 340
싸 래 기	1,000	4근/200근, 4근 × 250원 = 1,000원
小 計(B)	8,890	
原 價 (A-B)	67,210	產地精穀價格 66,000원 / 80kg

* 1985년 12월 20일 기준 羅州 지역의 조사결과임.
쌀의 等級은 湖南米 中品 기준.

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를 全南 羅州 지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조사 당시 羅州에는 160여 개소의 임도정공장이 있었는데, 이 중 粗穀去來를 활발히 하고 있는 공장은 12개소에 불과하였고, 이들은 각 면에 1~2개씩 위치하여 지리적으로 市場圈을 분리하고 있었다.

조사 당시 (1985. 12) 羅州 지역의 粗穀 거래단위인 200근 (120kg) 당 產地購入價格은 73,000원인데 비하여 쌀(精穀)價格은 80kg 叼當 66,000원이었다. 먼저 搗精業者가 벼를 200근당 73,000원에 구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쌀로 판매할 때의 收益性을 살펴보기 위하여 搗精工場의 精穀 80kg 當 原價를 계산한 결과는 <表 9>와 같다.

粗穀 120kg 을 도정하면 쌀 87.6kg 이 생산되어 精穀 80kg 한 가마와 약 7.6kg 의 剩餘가 생긴다. 또한 搗精過程에서 싸래기·미강·왕거 같은 副產物이 생긴다. 이 7.6kg 의 쌀 잉여분과 副產物이 도정공장의 副收入(금액으로는 8,890원으로 추정)이 된다. 한편, 粗穀의 購入費와 도정

豆·上下車費·蒐集輸送費를 포함한 비용은 精穀 80kg 가마당 76,100원이 된다. 따라서 搗精業者가 벼를 120kg 당 73,000원에 구입하여 精穀 80kg 을 생산하는 데 原價는 67,210원으로 계산되었다. 그런데 그 당시 產地 精穀購入價는 80kg 가마당 66,000원이었으므로 한 가마당 1,210원의 赤字가 발생한다는 계산이 된다. 물론 精穀 80kg 가마당 上記 原價에는 搗精料가 2,300원 포함되어 있으므로 搗精業者는 粗穀을 買取하여 가공할 때에 搗精料를 약 절반만 받은 셈이 된다.

여기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은 과연 粗穀去來 지역에서 搗精業者가 粗穀을 買取販賣하면서 商去來利益도 없고 도정료도 절반만 받으면서 만족할 것인가이다. 앞으로 米價가 상승하면 價格上昇으로 보상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產地市場이 아닌 대도시 소비지 都賣商과 거래하면서 반출까지를 겸하면 都賣價格과 產地價格의 價格差로 보상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 產地市場에 쌀을 판매할 경우에는 搗精料마저 지금까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지조사 결과에 의하면 일부 粗穀買取販賣를 하는 貨搗精業者들은 일반계 벼에 신품종 벼나 심지어 政府米를 혼합함으로써 原價不足分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不當利益을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일반계 벼와 통일계 벼를 4對 1로 혼합하여 一般米로 판매할 경우 調査時點 價格基準으로 가마당 약 1,298원의 利益을 얻게 되어 搗精料不足分 1,210원을 보상하고 88원의 초과이익을 얻게 된다. 이러한 일은 벼가 粗穀으로 구입되면서부터 소유권이 임도정업자에게 넘어가 농민은 아무 관련이 없게 되고 행정관서의 적극적인 品質管理介入도 부족한 상태에서 모든 工程—— 즉, 保管·加工·販賣 등——이 貨搗精業者の 책임 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다.

임도정업자는 소비자 시장의 가격 조건과 去來狀態가 유리하게 작용하는 한, 이러한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반면에 粗穀去來 지역의 농민이 粗穀을 搗精工場에 운반하여 가공한 후 精穀으로 產地市場에 팔 경우에는 搗精料 등을 지불하여야 하므로 貨搗精業者의 原價算計에서 보았듯이 例當 1,210 원의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粗穀去來 지역의 농민은 대도시 都賣商과 직접 거래를 하여 商去來의 이익을 얻지 않는 한, 이 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으며 이는 거의 불가능하다.

결국 粗穀去來 지역의 搗精業者는 產地精穀價格보다 높은 가격으로 粗穀을 구입함으로써 精穀去來를 구조적으로 억제하고 그 지역내의 粗穀을 확보하며, 이때에 발생하는 赤字는 混合穀 등을 만들어 소비자로 유통시키는 등 不正流通을 통하여 보상하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粗穀去來는 농민의 입장에서는價格面이나 流通 서비스面에서 공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不正流通의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粗穀去來 지역에서 貨搗精業者들은 加工原價의 不足分을 보상받기 위해서, 또 極大利潤을 얻기 위해서 流通段階를 축소하여 산지 반출상이나 소비자 도매시장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消費地 都賣商 또는 小賣商地區 組合과의 거래를 확대시키고 있다. 이것은 곧 流通經路의 分散化를 촉진하는 것으로 여기에 관하여는 다음 절에서 다시 논하고자 한다.

다. 貨搗精業者의 流通情報 機能

流通情報은 市場내 去來者數와 함께 시장의 경쟁성과 공정 거래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流通情報가 時期的 또는 場所的으로 제약되어 있

거나 일부 집단에 지나치게 의존되어 있을 때에는 市場의 價格發見 (price discovery)과 資源配分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流通情報體系의 확산은 市場機能의活性화面에서 매우 중요하다.

流通情報은 상품의 거래와 관련된 價格情報와 物量情報로 구분된다. 이 정보 중에서 산지 농민에게 직접적인 判斷資料로 널리 활용되는 것은 價格情報이다. 이情報を 정확하게 많이 갖고 있는 去來者는 商品去來時 유리한 입장이 된다.

產地市場의 流通情報은 產地商人 및 5日市場, 그리고 貨搗精業者에게 많이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민이 一般米를 판매할 때 價格情報を 입수하는 곳은 產地商人 및 5日市場이 45%, 產地貨搗精業者가 42%이며, 이웃 농민이나 친지 등이 14%로 조사되었다(表 10). 產地農民은 대도시 도매상과 직접 거래를 하는 경우가 적으므로 대도시 도매상으로부터 價格情報を 입수하는 비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產地農民이 대도시 도매상으로부터 價格情報を 입수하는 비율이 매우 낮음으로 인하여 소비자 도매가격이나 소매가격에 관한 情報入手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정보는 產地價格의 공정한 형성을 위한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消費地 去來는 대체로 쌍방간의 수의거래이므로 價格情報 및 費用에 관한 情報는 타인에게 배타적이다.

따라서 產地價格 형성의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消費地 去來價格은 농민과 거래 관계가 있는 產地商人이나 임도정업자는 잘 알 수 있으나 농민자신은 특별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잘 알 수 없다. 물론 정부나 농협 등의 공공기관에서 消費地價格을 홍보하고 있으나, 이 價格情報

表 10 一般米販賣時價格情報入手處

區 分	農家數 (戶)	構成比 (%)
商人 및 5 日市場	31	44.9
搗精工場	29	42.0
이웃 및 親知	4	5.8
매스컴	2	2.9
大都市都賣商	2	2.9
農協 또는 農協刊行物	1	1.5
計	69	100.0

만으로는 개별 거래에 직접 구속력을 가지지는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產地農民이 직면하는 價格情報入手體系는 거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소비자 거래가격에 관한 정보를 배타적으로 갖고 있는 產地商人이나 일도정업자에게서 產地價格을 발견해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去來者이지만 서로 반대되는 입장에 있다. 農民은 높은 가격을 원하는 반면, 產地商人이나 貨搗精業者는 낮은 가격을 원할 것이다. 따라서 農民이 產地價格情報を 이들에게서 얻고, 消費地去來價格情報와 流通費用에 관한 情報에 유리되어 있는 한, 거래할 때에 불리할 가능성이 높으리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產地價格情報體系는 가격 발견의 한 기준이 될 消費地去來價格과 流通費用을 농가가 필요한 지역, 필요한 시점에 따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改善될 필요가 있다. 農家 수준에서 市場情報專擔機關이 필요한 중요한 이유로서 「適正價格保障으로 商人 등에게 속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농가가 57%였다는 조사 결과(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0, 40)가 產地流通情報體系改善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貨搗精業者의 保管 및 金融機能

종전에는 대부분의 농가가 農家庭前에서 벼를

탈곡하였기 때문에 탈곡 후自家倉庫나 간이 보관 장소에 보관하였다가 搗精하고자 할 때 搗精工場으로 운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탈곡기의 보급 확대와 農路改善으로 脱穀作業의 場所가 農家庭前에서 圃田으로 점차 이동하여 감에 따라 貨搗精工場의 粗穀保管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 왜냐하면 농가의 입장에서는 脱穀作業이 圃田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벼를 自家倉庫 등에 운반·보관하였다가 다시 도정공장으로 운반하여 도정하는 것보다 圃田에서 탈곡과 동시에 도정공장으로 운반하여 工場內에 보관하는 것이 벼의 운반 및 보관에 따른 시간·노동력·施設 및 諸費用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貨搗精業者の 입장에서도 도정 물량이 확보됨으로써, 搗精料收入과 販賣收入 등 搗精工場의 經營收支를 안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韓國農村經濟研究院(1986, 113)의 한 報告書는 37개 貨搗精工場 중 84%에 해당하는 31개 도정공장이 벼를 보관하고 있으며, 전혀 보관하지 않는 搗精工場은 2개소에 불과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表 11)。

그리고 粧穀加工協會 자료에 의하면 이들의 保管場所는 대체로 工場內와 倉庫가 대종을 이루며 工場내 보관물량이 52%, 倉庫保管이 28%, 기타 헛간 등 간이시설 16%, 약적물량이 4% 선이었다.

貨搗精業者들은 대부분 보관료를 받지 않고 있어 保管機能은 도정물량 확보를 위한 서비스라

表 11 貨搗精業者の 粗穀保管 與否

區 分	충부권	호남권	영남권	계
보관한다	15	9	7	31(83.8)
보관하지 않는다	0	1	1	2(5.4)
무응답	1	3	0	4(10.8)
計	16	13	8	37(100.0)

資料：韓國農村經濟研究院(1986).

고 볼 수 있다. 搗精工場의 보관 물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 搗精料收入 및 販賣收入 등 도정공장의 경영수지는 큰 영향을 받는다. 때문에 대부분의 임도정업자들은 많은 受託保管 物量을 확보하기 위해 운반시설을 소유하거나 또는 貸借하여 圃田을 순회하면서 粗穀을 수집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경기도 평택군)의 경우, 貨搗精業者는 더 많은 粗穀 保管物量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粗穀을 수집해 오는 者와 搗精料收入을 나누어 갖는 分益制를 채택하거나 乾燥機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기도 하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貨搗精工場의 米穀保管 기능은 농가나 임도정업자 모두에게 利點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搗精工場의 保管施設이 전근대적이어서 大量保管에 따른 米穀의 변질·감모 등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貨搗精業者들은 米穀保管 기능의 확대에 대비하여 保管施設의 현대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貨搗精業者의 米穀保管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金融機能도 활성화되고 있다. 예컨대, 농가로부터 미곡을 보관하고 있는 임도정업자는 이 米穀의 가공 또는 판매를 담보로 短期信用貸出을 하기도 하며, 이보다 더 발전적으로 米穀保管證을 농가에게 발행해 주고 있다. 短期信用貸出은 해당 농가와 임도정업자간의 금융관계이다. 그러나 米穀保管證은 그 지역내에서 有價證券과 같이 유통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貨搗精業者가 保管糧穀으로 무리하게 金融機能을 수행하는 결과 농가가 보관 양곡을 인출하려고 할 때 辦濟가 불가능하여 現物不渡를 일으키는 등 농가에 손해

를 입히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貨搗精業者의 米穀保管證 발행을 금지시키거나 有效期間을 단축하는 등 米穀保管證發行에 따른 事故防止策을 강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2. 消費地 流通經路의 分散化

가. 貨搗精業者의 消費地 米穀販賣 實態

임도정업자가 미곡을 어디에 판매하느냐 하는 것은 임도정업자의 搬出機能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리고 販賣先이 어떤 상인인가 하는 것은 임도정업자가 기여하는 流通經路의 分散을 알게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糧穀加工協會에 의하면, 임도정업자가 產地 또는 農村都市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집상 또는 반출상에게 미곡을 판매하고 있는 비중과 소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都賣商 또는 小賣商에게 판매하는 비중이 비슷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는 販賣處에 큰 차이가 있다. 즉, 京畿 지역은 產地蒐集商 販賣比率이 51%이며 消費地인 서울·인천 등의 수도권지역 都·小賣商의 그것은 42% 선이었다. 여기에 반해 같은 수도권 인접지역인 忠南地域은 蒐集商 販賣比率이 50%이며 產地搬出商의 그것도 23%이다. 따라서 消費地 都·小賣商의 그것은 27% 정도이다. 全北 지역은 產地 및 農村都賣商人 販賣比率이 45%인데 消費地 都小賣商의 그것은 55%이다.

그러나 粗穀去來 지역인 全南·慶北·慶南은 임도정업자의 소비지 都·小賣商 米穀販賣比重이 각각 83%, 78%, 88%로 매우 높다(表 11). 이는 이 지역에서는 임도정업자의 상당수가 수확기에 粗穀을 구입·보관하고 있다가 時勢가 좋

表 12 賃搗精業者의 米穀販賣先別 販賣量, 1984

단위 : 千兜／80kg, (%)

地域		蒐集商	搬出商	都賣商	小賣商	計
京畿	(2,343)	1,513(51.0)	211(7.1)	642(21.7)	599(20.2)	2,965(100.0)
忠北	(1,331)	83(9.3)	63(7.0)	609(67.9)	142(15.8)	897(100.0)
忠南	(2,367)	1,792(50.5)	807(22.7)	261(7.3)	694(19.5)	3,554(100.0)
全北	(1,752)	255(8.4)	1,149(37.7)	1,427(46.8)	220(7.1)	3,051(100.0)
全南	(2,777)	66(7.6)	79(9.1)	305(35.1)	418(48.2)	868(100.0)
慶北	(3,182)	17(1.8)	194(20.2)	422(43.9)	327(34.1)	960(100.0)
慶南	(3,203)	7(1.5)	52(10.9)	236(49.9)	179(37.7)	474(100.0)
計	(16,955)	3,733(29.2)	2,555(20.0)	3,902(30.6)	2,579(20.2)	12,769(100.0)

()안은 報告된 搞精工場數.

資料: 糜穀加工協會 資料에서 計算.

을 때 가공하여 대도시의 상인에게 직접 반출하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表 12〉에서 보듯이 精穀去來地域인 京畿와 全北에서도 粗穀去來地域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놓지만 임도정업자의 消費地商人 販賣比率이 각각 42%, 54%이다. 이러한 현상은 이들 지역에서는 농가로부터 수탁받은 精穀을 시황에 따라 직접 반출하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消費地 流通經路의 分散化

이러한 產地賃搗精業者の 消費地 都·小賣商米穀販賣比重이 높음으로 인하여 消費地 米穀流通經路는 미곡이 대단위 都賣市場에 집중되어 가격이 형성되고 다시 分配機構로 유통되는 集中化經路(centralization)에서 도매시장에 집중되지 않고 소비지 각 去來地點에 있는 都·小賣商으로 바로 配分되어 가격이 형성되는 分散化經路(decentralization)로 변화하게 되었다. 즉 米穀流通 발전 초기에는 생산자→(賃搗精工場)→수집상→반출상→소비지 도매시장(위탁상)→도매상→소매상의 경로이던 것에 비해 현재에는 생산자→賃搗精業者(수집·반출상)→소비지 도매상(小賣商組合)→소매상의 경로로 流通段階가 축소되면서, 價格形成은 產地 임도정업

자나 반출상과 도·소매상이 만나는 각 地點으로 分散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

流通經路의 分散化는 米穀去來의 垂直的固 定去來로 더욱 촉진된 것으로 생각된다. 米穀은 일반 농산물에 비하여 高價品이다. 4.5톤 차량 당 채소류는 외형거래액이 40만 원 선이나 米穀은 600~700만 원 선이다. 따라서 去來者는 去來上의 危險을 최소화하여야 할 필요와 원활한 물량 반출을 위해서 固定去來를 확대하고 있다. 한 조사에 의하면(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6), 賃搗精業者は 年間去來量의 81.3%를 固定去來處와 거래하고 있다. 時期別 固定去來處去來比重은 수확기 75.3%, 중간기 84.6%, 단경기 96.2%로 단경기로 갈수록 固定去來處와 거래하고 있는 비중이 암도적이다.

임도정업자에 의한 消費地 流通經路의 分散化(decentralization)은 流通經路間의 경쟁을 초래하여 왔다. 이 결과 商人 流通經路도 도매시장을 경유하지 않는 分散化로 이행되어 왔다. 1984년 서울시 미곡 유통량 중에서 서초동 委託都賣市場 經由物量은 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4). 그리고 이 보고서에 의하면 小賣商도 도매시장을 경유하지 않는 分散經路(產地 直結去來)를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費用節減 및 購入價 저렴과 購入의 편리가 44.3%이며, 米質이 좋은 쌀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 38.5% 이었다.

3. 賃搗精業者와 米穀流通 參與要因

가. 產地米穀流通機能의 統合化 要因

임도정업자가 流通機關으로서 미곡을 인수받는 對農民機能은 농민을 대신한 商品化機能과 상인을 대신한 去來機能, 그리고 이를 보조하는 流通情報, 保管·金融機能으로 정리된다. 이러한 流通機能의 統合化 要因을 분석하기 위하여 農民, 商人, 賃搗精業者間에 진전된 경제사회적 변화를 관찰하고자 한다.

우선 1976년 이래 農業에 종사하는 經濟活動人口의 변화는 농촌의 勞動力 供給面에서 한 指標가 된다. 1976년 이후 농가의 經濟活動人口는 5,323천 名에서 1985년에는 3,544천 명으로 1,779천 명이 감소하였다. 한편 이 기간에 일반계 벼의 생산량은 1976년의 3,653,913톤 (67,044千吠(1吠=54.5kg)에서 1985년에 5,369,444톤 (98,703千吠)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1人當 粗穀취급량은 1976년에 12.6吠에서 1985년에 27.9吠으로 약 2.2배로 늘어 난 셈이다. 결국 일의 양이 2.2배 늘어났다.

이 기간 동안 勞動力의 質은 크게 낮아졌다. 1976년만 하더라도 40세 이상의 農林漁業就業者比重이 49.7% 이었고, 그중 55세 이상의 비중 17.8%였으나, 1985년에는 40세 이상의 취업자 비중이 66.5%로 늘었고 그중 55세 이상의 비중은 26.0%로 증가하였다. 이 기간에 農村勞動力의 老齡화가 크게 진전되었다.

農家가 商品化機能을 수행할 때 건조·보관·운반·포장 등은 주로 自家勞動力を 투입하던

일이었다. 이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의 量이 2배 이상으로 늘고 또 勞動力의 質이 크게 낮아졌으니, 이를 불편하게 여길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質이 낮은 勞動力으로는 급변하는 商品市場에서 流通情報 to 획득하고 시장을 선택하고 거래하는 商機能을 원만히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勞動力이 부족한 農家에서는 一般米 生產增大로 추가된 商品化機能과 商去來機能을 他人勞動力으로 대체하고자 할 것이다.

농가가 商品化 기능과 商去來 기능의 代替勞動力으로써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유통기관은 賃搗精業者나 商人, 生產者團體인 農協組織이다. 農協組織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농가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 따라서 農家는, 자신들의 代替勞動力 요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賃搗精業者에게 이 기능을 위탁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賃搗精業者の 입장에서는 상인에 비하여 경제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보다 유리한 점이 있다. 첫째, 모든 米穀은 자체가 지니는 商品的 特性 때문에 반드시 搗精工場을 거쳐야 한다. 둘째, 搗精工場은 米穀의 일차적 集結場所로서 도정된 미곡의 現物授受 또는 판매를 위하여 再運搬·再計量 등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세째, 賃搗精業者は 搗精料收入이 부족하여 附加적인 收益을 얻기 위하여 상행위를 하는 경향이 있다. 네째, 농가의 勞動力代替는 대체로 農家庭前에 발생하는 것인데 그동안 產地商人은 政府收買擴大의 영향으로 一般米流通量이 절대적으로 감소하여 마을 단위의 產地에서 읍, 農村都市 단위로 옮겨 수집·반출 기능을 주로 하고 있었다. 따라서 농가의 勞動力 代替要求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地理的 制約이 있었다. 그러므로

貨搗精業者보다 불리하였다.

이상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一般米流通量 종대로 인한 產地流通機能需要擴大는 임도정업자에 의한 流通機能의 統合화로 발전된 것으로 평가된다.

나. 消費地 流通經路의 分散化 要因

임도정업자에 의한 消費地 米穀 流通經路의分散化(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흘어져 있는 都小賣商과 직접 거래) 요인은 크게 流通下部構造의 改善과 米穀의 商品的 特性, 產地出荷 單位의 大型化 등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集中化 經路와 分散化 經路時 어찌한 양상을 떠는가 비교해 봄으로써 米穀 流通經路의 分散化 要因을 규명하고자 한다.

첫째, 철도 수송 등 제한된 수송 시설은 商品의 集結을 요구하는데 반해, 자동차와 도로망의 발전은 상품의 수집 지역뿐 아니라 분배 지역을 넓혀 준다.

둘째, 通信施設이 미비하면 구매자와 판매자가 직접 어떤 장소에 모여 가격을 결정해야 하므로 자연히 集中化經路를 초래한다. 그러나 通信速度가 신속하여지고 그 수단이 개발되면 구매자와 판매자가 어떤 장소에 모이지 않고도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들을 넓게 분산시켜 놓고도 去來條件를 결정할 수 있는 市場空間을 확대하여 分散化經路를 촉진한다.

세째, 商品의 부폐성이 높고 標準化가 미비하면 購買者가 商品의 신선도와 等級 등을 직접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크므로 거래자들이 한 곳에 모이지 않으면 안된다. 부폐성이 높으면 보관·저장 기간이 짧아 1회당 구입량이 적고 구입 횟수는 많아진다. 따라서 集中化 經路인 도매시장

을 경유해야 한다.

여기에 반하여 商品의 저장·보관성이 좋고 標準化가 발달되어 있으면 見本去來나 通名去來가 증가하며, 1회 구입량이 大型化하고 구입빈도를 줄인다. 따라서 商品이나 去來者가 集結할 필요를 덜 느끼면서도 거래가 가능하다. 米穀은 다른 여타 농산물에 비하여 貯藏性이 매우 높고 產地別 브랜드에 의해 標準化와 等級化가 잘 되어 있는 설정이다. 따라서 米穀 去來는 대부분 通名去來로 이루어지고 있다.

네째, 生産 규모가 적고 전문화되어 있지 않으면 구매자가 產地에서 少量씩 구입하느라 비용이 많이 들므로, 產地蒐集商의 개입이 불가피하여지고 유통경로가 길어진다. 여기에 반하여 소수의 大規模生產은 出荷量을 어느 정도의 購買單位 또는 輸送單位化하여 구매자와 거래를 용이하게 한다. 米穀은 임도정업자의 產地流通機能 統合화로 인하여 개별 농가보다 大規模 商品生產이 가능하게 되었고, 出荷量도 購買單位化 내지 輸送單位化되어 소비자의 구매자와 직접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流通經路의 分散化가 촉진되었다.

이상과 같이 流通下部構造의 改善과 商品의 특성, 그리고 임도정업자의 產地流通機能 統合화로 인한 出荷單位의 大型화는 消費地 米穀 流通經路를 과거의 도매시장 경유의 集中化 經路에서 직접 都·小賣商과 거래하는 分散化經路로 변화하게 한 요인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외에도 消費地 流通經路의 分散化 要因으로는 소비자 소매상조합 등의 출현으로 보다 규모가 큰 購買單位要求, 대금결제 방법의 개선으로 직접 대면을 할 필요성이 적어짐과 아울러 代金決済 단위가 큰 데 따른 거래상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固定去來處의 확보 등을 들 수 있

겠다.

IV. 問題點 및 改善方向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賃搗精業者의 米穀流通 참여는 產地 米穀流通機能의 統合化와 消費地 流通經路의 分散을 발전시켰다. 產地 米穀流通機能의 統合化는 對農民 서비스의 강화, 多段階 所有權移轉에 따른 부대적인 비용의 절감, 商品化 作業의 규모화 및 최적화 등의 流通效率을 증대시키는 일면이 있고, 流通經路의 分散化는 經路間 경쟁을 유발시켜 流通費用을 절감시키는 등의 유리성이 있으나 몇 가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간략히 논의하고자 한다.

(1) 產地米穀去來量의 63%가 賃搗精業者에게 판매되고 그 중 88%가 賃搗精業者自己計算下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농민이 價格發見의 다른 기준이 되는 消費地 價格情報 및 流通費用情報 등을 쉽게 얻을 수 없고, 정보 획득처도 직접 이해관계에 있는 賃搗精業者 등에 크게 의존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임도정업자는 지역적으로 產地市場을分割, 需要寡占的市場圈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產地市場에서 농민의 임도정업자에 대한 市場交涉力 (bargaining power)의 弱化가 우려된다.

이러한 農民의 市場交涉力 弱化를 극복하기 위하여는 ① 농민이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시장인 農協 單位組合의 流通活動 강화가 요청된다. 單位組合은 자체사업으로 米穀擔保制 등을 도입하여 組合員의 市場交涉力を 강화해 주고 있는 사례가 없지 않다.

② 產地賃搗精者에 의한 需要寡占的 市場을

競爭市場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單位組合의 流通活動에도 임도정업자간의 談合 금지와 영세 임도정업자도 市場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 요구된다. 영세 임도정공장의 시설규모의 확대 및 현대화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관련 세제 및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③ 농민이 임도정업자 등과 거래할 때 수취가격의 公경성을 판단할 수 있는 이용 가능한 消費地價格 情報 및 流通費用에 관한 情報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어야 하겠다. 流通情報은 현재 農協 등에서 전달 보급하고 있으나, 대개 한 지역 한 시장의 都賣價格 등에 국한되고 있다. 米穀의 消費地 流通經路가 도매시장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흘어져 있는 도매상이나 소매상으로 分散化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현재의 價格情報은 產地去來에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米穀의 경우 동일 도시내의 分散된 市場圈의 價格情報 등이 전달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粗穀去來는 農家勞動力의 양적·질적 하락과 일반미 식부면적의 증가로 인하여 추가된 商品化 및 去來機能을 他人勞動力으로 대체하면서 점점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粗穀去來는 대부분 수확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商品의 所有權을 賃搗精業者가 보유함으로써 앞으로 市場價格의 상승이 農家所得으로 移轉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상품의 보관·가공·판매 등이 賃搗精業者 책임하에 이루어짐으로써 混合穀 등의 不定流通을 시도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또한 현행 糧穀管理法상 陰性的商去來를 할 수밖에 없으므로 去來處를 밝혀야 하는 都賣市場과는 원천적으로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는 ① 粗穀去

來量의 집중출하를 완화할 수 있도록 농가의 現金需要를 줄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수확기 농가의 현금수요 중 비중이 높은 農協의 營農資金 債還時期를 현재의 12월말에서 다음해 3월 정도로 연기한다든지, 아니면 一般銀行의 貸出金償還과 같이 1년 만기로 하는 것이 고려될 수 있겠다. 일부에서는 收買로 방출된 資金이 곧 바로 營農資金償還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營農資金 債還이 어렵고 通貨 인플레이션의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없지 않다. 만약 이러한 우려가 있다면 米穀擔保融資制의 도입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② 糜穀管理法상 貨搗精業者는 음성적으로 상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陽性化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으로써 貨搗精業者도 米穀流通에 合法的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法的 근거를 마련해 주는 동시에 不正流通의 가능성은 최소화하기 위하여 商品生產에 대한 協約 등 적절한 規制措置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流通經路의 分散化(decentralization)는 일반적으로 經濟的 效率性을 제고하는 것으로 믿어지나 價格形成의 效率性(pricing efficiency)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米穀流通經路의 分散化는 앞에서 보았듯이 流通下部構造(marketing infra-structure)의 개선과 상품의 특질, 그리고 특히 임도정업자에 의해 米穀의 大量生產이 가능하게 되어 產地出荷量이 購買單位化・輸送單位化되고 이와 함께 消費地 小賣商組合 등이 보다 큰 購買單位를 요구하게 되었기 때문에 진전된 것이다. 그러므로 공개적인 價格形成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동원하여 都賣市場을 경유하도록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실제로, 分散化經路에서 去來는 產地에 있는 판매자가 소비지의 각각 다른 市場圈의 구매자와 信用去來를 하

고 있다. 즉 產地販賣者는 서로 다른 선택할 수 있는 市場圈의 價格 등 流通情報 to 입수하여 가장 이익이 많은 시장으로 商品을 판매할 것이기 때문에 資源分配은 효율적일 것이라는 생각도 가능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들은 상호 固定去來先을 가지고 있으며 代金決済 중 信用의 비중이 적지 않고, 대체로 長期間 거래하고 있다. 따라서 어느 일방에 손해를 입힐 去來의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비용이 쌈 통신 수단의 확대 보급, 代金決済 方式의 개선, 商品의 지역별 標準化와 等級化, 일방적인 거래가 불가능한 장기간의 固定去來, 代金決済 중 信用의 비중이 높은 거래 방법은 產地 貨搗精業者 및 搬出商과 消費地 都小賣商의 去來에 있어서 價格形成의 公正性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문제는 이들이 아니라 소매상과 소비자, 그리고 생산자와 임도정업자간의 價格形成의 公正性으로 귀착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生產者團體의 流通活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消費者團體의 활동, 그리고 流通情報의 公開가 보장되는 公益團體의 流通活動이 크게 요구된다고 하겠다.

參 考 文 獻

- 成培永, 許吉行, 安基玉, 「青果物流通體系 分析」, NMMPS 報告書,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4.
 安基玉, 「農產物 農家販賣價格形成에 관한 研究: 市場交涉力を 中心으로」, 高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3.
 盧煥相, 「農產物流通」, 協同研究社, 1982.
 朱龍宰, 尹錫元, 「政府糧穀管理體系의 改善方案에 관한 研究」,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3.
 朱龍宰, 明光植, 安基玉 外, 「政府糧穀管理制度 改善에 관한 研究」,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6.
 朱龍宰, 李永錫外, 「서울市 米穀流通改善 方案」, 1984.
 農協中央會「米穀流通과 農協의 對應」, 1986.

- 田中勉(監修)「米穀の流通と管理」, 地球社, 1985.
山中弘, 桜井博治, 「米穀の經濟學」, 富民協會, 1985.
Helmberger, P., and Sidney Hoos, "Economic Theory
of Bargaining in Agriculture," *J. F. E.*, Dec.
1963
Irwin, H. S., "Middlemen's Accumulations and Ex-
pectation in Marketing Farm Products," *J. F. E.*,

Dec. 1964.

- Kolls, L. Richard, and Uhl, N. Joseph, *Marketing
of Agriculture Products*, Macmillian Publishing
Co., 1980.
Torgerson, R. E, *Producer Power at the Bargaining
Table*, Univ. of Missouri Press, 1970.